



육계 사양관리

한번 본 기사 다시 한번 보자

연 제 영 (주)CKF마케팅 및 기술개발팀



○ 리나라의 환경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덥고 다습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절기인 봄에는 기온차가 심하여 환기관리를 잘못하면 심각한 손실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환기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할 계절이라 하겠다.

그 외에도 건강한 병아리, 최적 수준의 사료, 정성어린 사육관리등 여러 가지 필수 요건이 있으나 이중 봄철, 한해의 입추를 준비하면서 농장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사양관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육추계획의 수립

1) 올인-올아웃 시스템(All-in All-out System)

일정한 공간의 사육공간내에 병아리를 동시에 입추하고 동시에 출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계군의 나이를 중복하여 연속적으로 입추하고 육성하는 방식에 비하여 출하후 소독을 하는 동안 새로운 병아리를 입추하지 않음으로서 질병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전 사육시 발병했던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육계의 성장과 사료효율이 좋으며 생산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육



방법이라 하겠다.

2) 육추계획 수립

육계의 사육 목적에 따라 육추기간과 휴식기간을 정하여 이에 따라 연간 사육횟수가 정해진다. 육추간의 휴식기간은 보통 1주~2주정도로 하며 질병발생이나 시세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2. 육추준비

1) 소독 및 깔짚 준비

계사내부(천장, 바닥, 벽등)와 육추기구(사료통, 물통, 난방기구등)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소독을 한다. 그 후 충분히 건조시켜 차단방역후 입추하도록 한다.

사료 급이 라인과 사료 빈을 사전에 청소하여 신선한 사료를 급이 할 수 있도록하며 급수라인도 소독하도록 한다.

깔짚은 종류가 다양하며 깔짚의 종류에 따라 수분함유능력이 다르나 중요한 것은 수분함유능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육계의 사육에 꼭 우수한 것은 아니다.



좋은 깔짚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무게가 가벼우며 입자의 크기가 적당할 것

- 수분흡수 능력이 뛰어날 것
- 부드러워 안정감 있을 것
- 건조가 잘될 것
- 가격이 저렴할 것
- 재활용이 가능할 것(퇴비등)

2) 온도 및 습도

입추 몇 시간 전에 물통에 물을 준비하여 실내 온도와 유사하게 온도를 맞추고 음수용 비타민 등을 적정량 투여하여 주면 병아리의 생존율 및 발육을 좋게 할 수 있다.

입추후 1주일간의 온도 및 습도 조절은 매우 중요하며 육추실내의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추시 온도는 30~35℃,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습도의 경우 초기에는 70%, 1주후부터는 60%정도가 적당하다.

습도부족시 탈수로 인한 쇠약과 우모발생 등이 지연되고 음수과다와 식욕감퇴, 소화불량 및 성장부진, 항문폐쇄증 등에 이어 폐사가 증가한다.

입추 2~3일 후에는 습도증가요인에 의해 과습우려가 있으며 과습시 곰팡이 발생으로 인해 질병감염이 쉬워지고 가슴부위 물집이 생기기 쉽다.

환기가 불량할 경우 성장도 저하되지만 콕시듐 및 장염,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환기

환기 불량시 대부분 호흡기 질병과 후기 성장 지연의 주원인이 된다.



과도한 공기배출은 저산소증을 유발하므로 적절히 조절하여 성장에 따른 환기가 중요하며 암모니아, 일산화탄소등과 같은 유독가스를 방지하여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깔집이 건조하고 실내에 냄새나 먼지가 없으면 환기상태가 양호한 것이며 환기불량시 성장 지연, 카니발리즘, 질병발생의 주요원인이 된다.

특히 틈새바람의 경우 호흡기질환 등의 주요인으로 온도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에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3. 급이 및 급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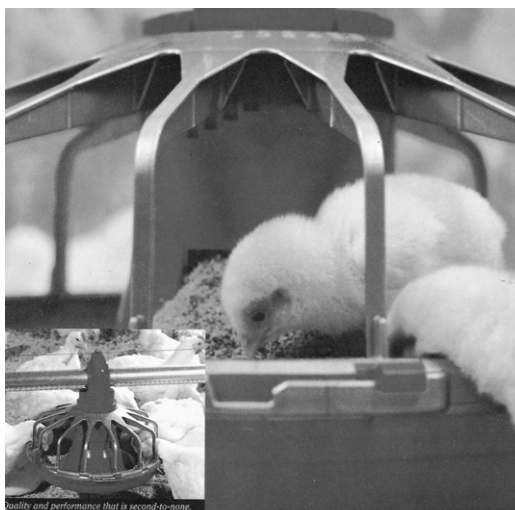
1) 사료급이

부화된 병아리는 자체 난황을 소화 흡수하므로 2~3일간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도 견디지만 첫모이주는 시기가 늦을수록 성장이 억제되거나 약추, 폐사가 증가한다.

- 사료통의 높이는 병아리 등높이가 적당하며
- 자유채식을 실시하되 일시에 급여하면 사료허실이 증가하므로 몇 번에 나누어 급여하는 것이 좋다.
- 사료통을 충분히 배치하여 병아리들이 동시에 모이를 먹을 수 있게 하여 약추 및 층아리발생을 방지하며 계군 균일도를 좋게 한다.

2) 급수관리

병아리에게 물은 제조직의 70%를 차지하며



이중 20%가 손실되면 폐사한다.

첫모이시간이 늦을수록 급수가 중요하며 물을 먹기전 사료를 먼저 먹으면 성장부진과 사료효율이 나빠지며 폐사율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먼저 물을 충분히 먹인 후에 사료를 급이 한다.

처음 몇일간은 24℃정도의 물을 급여하고 서서히 16℃정도의 물을 급수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음수량이 증가하여 21℃를 기준으로 온도가 10℃ 내려가면 80%로 감소하지만 32℃로 상승하면 2배 가까운 물을 섭취한다.

4. 그 외

1) 적절한 사료의 급여

전 기간 자유채식으로 진행을 하나 일령별이 아닌 증체 상황에 따라 전, 후기 사료를 적절히 급여하여 최적의 성장을 유도한다.

2) 사육밀도

사육목적 등에 따라 사육밀도를 정하여 최적



의 성장을 유도한다.

계사의 적정 사육용량은 계사의 크기, 보온능력, 온도, 습도, 환기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일반적으로 사육밀도가 높아지면 사료섭취량이 떨어져 성장이 저하되고 카니발리즘, 폐사 및 깃털불량이 증가하여 사육성과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육목적에 맞는 적정 밀도로 사육하는 것이 사료효율이나 상품성 등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

대부분의 육계 양축가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잘 시행하는 내용이나 보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면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의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설마 하던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한번 본 계사 다시 한번 보자!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동광축산컨설팅(구,동광공업)

대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5)374-8461~2

팩스 : (055)375-8461